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Blood of Jesus」



HANSUNG
UNIVERSITY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Blood of Jesus」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영

김은영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6월 일



HAN 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김 은 영

본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제로 한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작품 연구이다. 고난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일부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은 계획을 무너뜨리며 심리적 불안과 좌절을 안긴다. 반복되는 고난의 위기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며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깊은 절망 앞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갈증을 해소하고자 자신에게 질문하였다. 삶에서 마주한 고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으나 결국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라는 마음속 울림을 듣게 되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순간이었다. 이 체험은 단순한 감정의 해소를 넘어 기독교 창작무용을 통해 보혈의 능력이 고난 속의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동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부르며 인간의 고난과 보혈의 관계,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 메시지임을 전하려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신 고귀한 희생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사랑과 정의를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통로라 할 수 있다.

보혈의 능력은 죄 사함과 구원에 그치지 않는다. 영적 치유와 평안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구원, 육체적 질병의 치유까지 포함한다. 이 능력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숨결이다.

본 연구 작품 「보혈」은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하였다. 보혈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작품은 총 3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은 예수님의 찢기심, 십자가의 소망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예수님의 찢기심’은 보혈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지만,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앙인들의 고난을 표현하였다. 2장 ‘십자가의 소망’에서는 현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리라는 마음을 이미 확증된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함을 표현하였다. 3장 ‘보혈의 능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픔과 절망을 극복하여 전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보혈은 속죄와 인간 구원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직감적인 움직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중들에게도 기독교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길이 되었으면 하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 회복, 구원, 치유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II. 이론적 배경	5
2.1 창조와 타락	5
2.2 인간의 죄와 고난	6
2.3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10
2.4 보혈의 의미와 능력	13
2.4.1 속죄	13
2.4.2 구원	15
2.4.3 치유	17
III. 작품 개요	19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19
3.1.1 안무 의도	19
3.1.2 작품 내용	21
3.2 작품의 구조 및 형식	22
3.3 작품의 구성요소	24
3.3.1 움직임	24
3.3.2 오브제	26
3.3.3 음악	29
3.3.4 의상	30
3.3.5 조명	33
3.3.6 무대 공간 사용	35

IV. 작품 분석	38
4.1 제1장 : 예수님의 찢기심	38
4.1.1 안무의도 및 내용	38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9
4.1.3 음악 및 오브제	42
4.1.4 무대장치 및 조명	44
4.2 제2장 : 십자가의 소망	46
4.2.1 안무의도 및 내용	46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6
4.2.3 음악 및 오브제	49
4.2.4 무대장치 및 조명	51
4.3 제3장 : 보혈의 능력	52
4.3.1 안무의도 및 내용	52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3
4.3.3 음악 및 오브제	56
4.3.4 무대장치 및 조명	58
V. 결 론	59
참 고 문 헌	61
부 록	63
ABSTRACT	66

표 목 차

[표 3-1] 작품의 구조	23
[표 3-2] 음악	29
[표 3-3] 무용 작품에서 색상의 상징적 의미	32
[표 3-4] 색채 조명별 RGB code와 감정표현	33
[표 3-5]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	35



사 진 목 차

[사진 3-1] 1장, 2장 의상	31
[사진 3-2] 3장 의상.....	32
[사진 4-1] 오브제, 붉은 천.....	43
[사진 4-2] 조명 1	44
[사진 4-3] 조명 2	45
[사진 4-4] 조명 3	51
[사진 4-5] 오브제, 붉은 한삼.....	56
[사진 4-6] 조명 4	57



그림 목 차

[그림 3-1] 작품에서의 무대 사용	36
[그림 4-1] 움직임 1	39
[그림 4-2] 움직임 2	40
[그림 4-3] 움직임 3.....	41
[그림 4-4] 움직임 4	47
[그림 4-5] 움직임 5	48
[그림 4-6] 움직임 6	53
[그림 4-7] 움직임 7	54
[그림 4-8] 움직임 8.....	55



HANSUNG
UNIVERSITY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간의 죄와 질병, 그리고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인간에게 의미심장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다준다.

신학자 존 스토틀(John.R.W.stott,1921-2011)에 의하면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 가깝게 화해" 시키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말하였다.¹⁾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움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다. 보혈은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적 승리와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구원의 핵심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은 삶 속에서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 끊임없이 혼란과 고통에 직면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하며 때로는 삶의 불확실성을 통하여 안정감을 잃게 되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고난은 인간의 삶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필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²⁾

인간은 고난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하고 좌절시키며 이로 인하여 삶의 의미조차 상실하게 만든다. 고난은 인간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1) 존 스토틀. (2023). 『그리스도의 십자가』. (황영철, 정옥배 역). 서울: lvp. pp.360-380.

2) 최종호. (2010). "악의 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신학적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28, pp. 281-309.

이처럼 인간은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은 혼란에 휩싸여서 많은 의문과 회의를 느끼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며 깊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며 자신이 직면한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 이 시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는 것인가?’ 등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대면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가게 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보혈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뛰어넘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뜻한다. 보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도 같이 깊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이다. 즉 보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사랑을 진정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때 맞닥뜨린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자는 보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 작품을 통하여 현대인에게 보혈은 고난으로 가득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기독교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석사학위 청구 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주제로 한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대한 작품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24년 11월 18일 PM 7:00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제로 한 기독교 예술 창작무용 「보혈」에 관한 작품 분석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창작 작품 공연 실황을 촬영한 공연영상과 사진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안무 의도와 내용, 작품의 형식과 구조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였다.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창조와 타락, 인간의 죄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의미와 능력인 속죄, 구원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창조와 타락을 통해 인간의 죄와 고난의 기원을 살펴보고 인간의 죄와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와 고난과 영적 단절을 겪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의 화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고, 보혈의 의미와 능력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의 길을 여는 능력이 있고 이 보혈은 영적 치유의 능력과 인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임을 살펴보았다.

Ⅲ장, 작품 개요에서는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서 표현된 작품의 안무 의도와 작품 내용, 작품의 구조 및 형식과 작품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이때 작품의 구성요소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사용된 오브제, 착용한 의상 설명과 사용된 무대 조명 그리고 무대공간 사용을 설명하였다.

Ⅳ장, 작품 분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로 안무 의도 및 내용을 분석하고 움직임 구성 및 표현과 음악 및 오브제를 설명하고 무대장

치와 조명을 설명하였다. 1장에서는 로마서 5:8을 토대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통해 인간의 죄와 고통,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표현하였으며, 붉은 천을 십자가 사건과 찢어진 성소 휘장의 상징물로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과 조명 기법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현대인의 영적, 사회적 고난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붉은 천 오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길을 시각화하여 인간이 절망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여정을 표현하였다. 겸손과 희생의 움직임, 다양한 음악 요소(피아노, 전통악기), 그리고 조명 기법을 통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을 표현하였다. 3장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닌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붉은 한삼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시각화하고 한국 전통 춤사위와 북소리의 역동적 에너지로 표현하였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양 피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힘을 한국 무용의 곡선미와 호흡 붉은색과 황금색 조명을 통해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V장,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닌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고난은 인간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오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안무는 예수님의 보혈이 죄 사함과 구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임을 주제로 삼아서 음악과 움직임, 무대 연출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로,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자신의 삶 속 고난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순간들이 작품 창작에 큰 영감을 주었음을 미리 제시하고 작품 「보혈」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있음을 예술적으로 드러내었고 기독교 무용이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임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기독교 창작무용이 현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술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조와 타락

성경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것으로 창조 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ex nihilo)에서 창조를 이루셨다.³⁾ 천지창조는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천지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심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창조물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넘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권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자연의 모든 주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거울"⁵⁾ 이라고 말한다. 이 놀라운 피조물 중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구별되게 지으셨다.⁶⁾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 단계를 거쳐서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 2:7)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창 2:7)의 단계인데 이 순간에 우리의 영이 우

3) 배철현. (2002). "Creatio Ex Nihilo?". 『종교학 연구』, Vol 2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p.29.

4) 이은선. (2012).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신 인식과 인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p.67.

5) 상계논문, p.72.

6) 창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리 존재 안에 태어났으며, 세 번째는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의 단계인데 이것은 인간이 몸과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한다.⁷⁾ 이러듯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구별되게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다.⁸⁾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사랑하셔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⁹⁾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교제 안에서 평화롭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따르면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금지된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¹⁰⁾ 이로 인해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 단절의 관계가 되었다.

2.2 인간의 죄와 고난

인간의 죄는 기독교적 관점이나 일반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주요한 주제이다.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는 ‘하타트(חַטָּאת)’로 표적에서 빛나감¹¹⁾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죄가 단순하게 도덕적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강조하는 뜻이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 생각, 태도를 의미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한 영적, 도덕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

7) Hinn, Benny. (1994). 『예수님의 보혈』. (오복수 역). 서울: 은혜출판사. p.21.

8) 창1:27.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9) 창2: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0)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11) 우진성. (2018). “죄(罪)(חַטָּאת 하타)에 대하여”. ibp.

<https://ibp.or.kr/wordspostachio/?bmode=view&idx=2751153>

한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으로 원죄(Original Sin)로 불리며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되었다.¹²⁾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이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다.¹³⁾ 아담의 원죄는 이후 인간에게 전가되어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 도덕적 타락과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수치심이나 두려움, 양심의 가책 등의 내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고난으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절대자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

고난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개개인의 정도와 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당하게 되는데,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고난에서 벗어나 그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많은 철학자와 종교학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¹⁴⁾ 이러한 고난은 한 시대나 특정 지역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다.¹⁵⁾

인간의 고난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경 속

12) 이은원. (2004). "폴 틸리히의 죄개념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13) 창3:16-19.

14) 김교만. (2003). "욥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15) 이한선. (2011). "무용창작작품 「Free…… at Last!」에 나타난 고난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인물들과 사건을 통하여 성경적 고난을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로 기록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훈련과 교육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훈육적 고난이라 할 수 있는데¹⁶⁾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에 결국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며 훈련이다.

욥기 1장 8-11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로 기록되어 있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신실함이 진실인지 증명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¹⁷⁾ 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욥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시험이기에 그 고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더욱 견고해 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출애굽기 3장 7~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헛

16) 김진규. (2021). “고난 설교의 방법:고난을 해석하는 6가지 모델과 ‘타인의 얼굴’ 이해”. 데오스노로고스. <https://theosnlogos.tistory.com/1045>

17) 안인섭. (2017). “성도의 고난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이해(벧전 4:12-19)”. 리폼드뉴스. <https://www.reformednews.co.kr/6488>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로 기록된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려고 허락된 고난¹⁸⁾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40년의 긴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긴 기간의 고난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긴 시간의 고난을 믿음의 성숙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승리할 수 있다.

요한복음 9장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로 기록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¹⁹⁾이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묻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 소경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고난이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듯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여러 형태의 고난으로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 철학, 예술 등 여러 방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임이 인류사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죄와 고난을 극복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²⁰⁾

18) 오요한. (2006). “출애굽기3장 강해1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대학생성경일기선교회 http://cnuhf.co.kr/layout/res/home.php?mid=11&go=pds.list&pds_type=2&s_head=%EC%B6%9C%EC%95%A0%EA%B5%BD%EA%B8%B0&start=40&num=129&s_key1=&s_key2=

19) 심지형. (2017). “요한복음 강해41.하나님의 일을 위해 소경된자”. 기쁜우리교회. http://joywoori.org/bbs/board.php?bo_table=board_15&wr_id=107

20)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5-6)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구속의 길을 여셨다.

2.3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왜 십자가가 인간에게 필요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차재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각하고 총체적인 비참함 속에 놓였기 때문에 인간을 용서하셨다.”²¹⁾라고 말함으로써 십자가가 인간에게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죽음에 내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역사적 사건이며 이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²²⁾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종류와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영적 신앙을 성장케 하며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고난의 종류는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채찍을 맞으시고²³⁾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극심한 육체적 고난과²⁴⁾ 둘

21) 차재승. (2014). 『7인의 십자가 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pp.134-135.

22) 존 스토트, 전계서, pp.117-122.

23) 마27: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24) 막15:25.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째,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다.²⁵⁾ 셋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영적 고난을 당하셨다.²⁶⁾ 이렇듯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 사건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구원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을 구원 하셨다.²⁷⁾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사랑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으며 이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대속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이다.²⁸⁾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셨다.²⁹⁾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향하신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25) 마27:39-40.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26) 마27: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27) 서동수, (n.d.). “요한문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다차원적 해석에 따른 구원론의 단계들”. 한일장신대학교, p.112.

28) 이사야 53:4-6.

29) 서동수, 전개논문, p.122.

셋째,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의미라 할 수 있다.³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막14:36)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은 순종적 의미를 지님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께서 극심한 십자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순종과 사랑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표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며 죄 사함과 구원의 길임을 알 수 있다.³¹⁾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와”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³²⁾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을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는 인간과의 화해적 의미임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화해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30) 이지혜. (2022). “예수님, 죽음의 고난 통해 순종과 온전해지는 길 보여주세요”. 크리스천데일리,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2713>

31) 김희성. (2004). "신약성서의 십자가 이해". 『교수논총 = (A)collection of treatises』, 16, p53-81.

32) Hinn, Benny, 전계서, pp.130-132

것이다.

셋째,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 성취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의 언약이 명확하게 성취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신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다.³³⁾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고귀한 희생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고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요소로써 대속과 용서, 인간에 대한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깊고 숭고한 사랑이다.

2.4 보혈의 의미와 능력

2.4.1 속죄

속죄(贖罪)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제거³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속죄(히브리어: 'כפר' 카파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시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어 카파르(כפר)는 덮다(cover)와 속죄하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³⁵⁾ 이처럼 하나님은 흠 없는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이는 인간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이

33) 양은익. (2018). “십자가, 예언의 성취”. 들꽃교회, <http://grassch.com/?p=4762>

34)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35) Maxwell Whyte. (2009).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전의우 역). 서울: 규장, p.27.

루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속죄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진다.³⁶⁾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 없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피 흘림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수적임을 의미한다.³⁷⁾³⁸⁾ 이렇듯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반듯이 필요 했기에 속죄와 피 흘림의 관계를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속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성경을 통하여 속죄와 보혈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며 (롬 3:23)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라는 말씀을 통하여 보혈은 제사의 궁극적 완성이며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다.³⁹⁾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다.⁴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히 10:114)고 말씀하셨고, 이는 더 이상 반복되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⁴¹⁾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존 스토트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이 드러졌다."라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⁴²⁾ 즉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십자가 보혈은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표현하고 있다.

36) 전계서,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나라."

37) Maxwell Whyte, 전계서, p.29.

38) 존 스토트, 전계서, p.261.

39) 차재승, 전계서, pp.223-224.

40) Hinn, Benny, 전계서, p.132.

41) 전계서, 히브리서 10:10-12.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42) 존 스토트, 전계서, p.260.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

2.4.2 구원

구원(救援)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구해 주어 속박이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마음의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⁴³⁾인데, 칼빈의 구원론에 따르면 구원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전인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써 칭의와 성화로 설명된다. 칭의(稱義)의 과정은 성령의 역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며,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다. 구원에 대해서 칼빈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⁴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다가올 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다.⁴⁵⁾ 보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주어진다.⁴⁶⁾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로서 얻을 수 있는 귀

43)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44) 신자연. (2010).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26.

45) 윤재영. (2012). "루터와 칼빈의 십자가 신학 비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 열매라고 할 수 있으며⁴⁷⁾ 보혈은 죄와 죽음의 대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⁴⁸⁾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⁴⁹⁾ 구약 성서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 없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는데⁵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제사가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⁵¹⁾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피 흘림은 죄 사함의 필수 조건임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다.⁵²⁾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을 성취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혈은 죄를 덮을 뿐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⁵³⁾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9-10)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룰 수 있기에 보혈은 구원의 객관적 근거이며 인간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이다.⁵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보혈

46) 전계서, 로마서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47) 박요셉, (2024).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충북: 하늘빛출판사, pp. 43-46.

48) 전계서,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49) 상계서,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50) 상계서,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51) 상계서, 히브리서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52) 상계서, 히브리서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53) 박요셉, 전계서, p.46.

54) 전계서, 에베소서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 구원의 핵심이자 신앙의 기초가 된다. 보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죄를 씻고 영생을 보장하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보혈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능력이 되며⁵⁵⁾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 즉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⁵⁶⁾ 보혈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다.

2.4.3 치유

치유(治癒)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⁵⁷⁾을 뜻하며 치료를 통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기독교 관점에서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균형과 회복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치유와 신체적 치유 그리고 관계적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⁵⁸⁾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5)

예수님의 보혈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혼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 평화를 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55) 상계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56) 상계서, 히브리서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57)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58) 전계서,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릴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음을 의미한다.⁵⁹⁾

예수님의 보혈은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⁶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이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준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마음과 몸, 인생의 여러 상처로부터의 치유까지도 포함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골로세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관계적 회복과 화평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¹⁾ 즉 보혈은 깨어진 공동체 관계와 개인 간의 끊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에 사랑과 화합을 이루고 개인 간의 관계에 사랑과 평화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에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혼의 치유를 넘어서 신체적인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더 나아가 관계적 회복으로 화평을 가져오는 전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⁶²⁾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삶 속에서 보혈을 통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 미리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함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59) 박요셉, 전계서, pp.193-194

60) 박요셉, 상계서, p.122

61) Maxwell Whyte, 전계서, p.94.

62) 차재승, 전계서, p.194.

Ⅲ. 작품 개요

3.1 안무 의도 및 작품 내용

3.1.1 안무 의도

기독교 예술 작품 「보혈」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좌절, 고통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주제로 하였다.

일상에서 만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삶의 무게가 열길 높이의 벽과 높고도 높은 언덕으로 느껴질 때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벽과 오를 수 없는 언덕 같은 상황에 사로잡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이 어려운 고난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깊은 갈등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맡기니 신기하게도 온몸을 둘러싸였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부드럽게 감싸안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웠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의 죄와 수치, 실패와 상처까지도 모두 안고 가셨다.

연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상상할 수 없는 넓고 깊은 숭고함으로 내 삶을 안아주심에 대해서 시각적 언어로 나타내고자 하였고 고난의 한가운데 놓일 때 절망과 좌절 속에 갇히는 듯 느껴지지만, 이러한 고난은 결국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소중한 과정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통과 슬픔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임을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소망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또렷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혈로 나를 덮어 주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연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셨고 결국 진정한 자유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죄를 씻는 역할을 넘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였고, 그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아픔과 절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안무를 통해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피는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며,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에 담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예술 작품 「보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영과 육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혈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자 크나큰 사랑의 증거라는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3.3.2 작품 내용

휘장이 찢어짐을 형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시에 견고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극적으로 찢어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을 것이며 그 순간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 내면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장막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김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심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인생에서 폭풍처럼 반복되는 고난으로 절망과 슬픔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며 이로 인하여 겪게되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도저히 헤어 나올 수 없을 듯한 상태로까지 몰아가서 절망이라는 단어로 가득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절망으로 가득 찬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어두움을 벗어나 밝은 희망의 빛을 느끼게 된다.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로는 은혜로운 길을 잊음으로 인하여 다시 절망의 순간에 놓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믿을 때 깊은 평안이 어김없이 온몸을 감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평안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참된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보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한다. 또한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부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한다.

3.2 작품의 구조 및 형식

기독교 예술 창작무용 「보혈」은 총 3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희망과 소망을 담아 구성하였다. 장면 구성을 위하여 음악, 춤, 오브제, 의상, 무대 조명 등을 다양한 요소들로 적절케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품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문제로 고통과 낙망하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표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을 의미하며 보혈은 소망과 회복의 문을 열어 주는 내면적 열쇠임을 기독교 예술 무용으로 완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숭고한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며, 이를 통해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였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과 그분께서 값없이 주신 보혈의 은혜로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혈로 완성되는 희망찬 보혈의 능력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마다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브제를 사용하여 작품을 상징화하였고 조명과 의상으로 전체적인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각 장마다 주제를 표현하는 음악과 무용 장르를 선택하여 인간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 표현을 현대무용의 움직임 사용하여 창작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확증된 구원과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낭독하였다.

춤의 움직임, 무대배치, 조명, 음악, 오브제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와 안무자

의 의도를 전달하여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붉은 긴 천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를 더욱 상징화하였고 붉은 한삼과 북소리 음악에 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보혈의 능력과 승리를 상징화하여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다.

[표 3-1] 작품의 구조

장구분	소제목	내용	시간
1장	예수님의 찢기심	보혈을 바라보며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고난과 고통에 몸부림친다. 신앙인들의 고난을 표현	5분 40초
2장	십자가의 소망	삶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리라는 마음을 표현	2분 10초
3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표현	3분

1장은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음성언어로 고백한 후에, Ryan Choi가 작곡한 “Dellage”를 사용해 어둡고 깊은 음색과 느린 피아노 선율로 슬픔과 변민을 표현하였다.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어우러져 아픔과 절망의 감정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고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긴장감을 더하고자 하였다.

2장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CCM 곡을 사용했으며 음악의 가사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사랑, 신앙인의 삶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가야금, 해금, 북 등 서양악기와 한국 전통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곡의 감정적 깊이와 전통적 분위기를 더하고자 하였고 특히 해금의 애절한 음색을 통하여 무용수의 감정 표현과 한국무용의 호흡,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3장은 창작곡으로, 피리와 대금이 주 멜로디를 이끌고 해금이 감정 표현을 강화하였고 피리는 낮은 음역에서 힘찬 기상을 대금과 해금은 서정성과 감정을 전달하였으며 장구와 북이 리듬을 주도하고 징과 소고가 강한 비트를 강조해 곡의 클라이맥스를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각 악기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게 하였으며 웅장한 북소리와 힘찬 리듬이 한국무용의 전통적 요소와 동작 및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3.3 작품의 구성요소

3.3.1 움직임

예술 작품에서의 무용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적 행동이 아니라 깊은 예술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고 있다. 무용수가 표현한 감정과 안무 의도를 돕는 의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조명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결합되어 시각적으로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 예술적 영향을 높이게 된다.

1장에서 음성 녹음된 성경 말씀 낭독을 배경음으로 시작되었다. 오브제로 사용된 붉은 천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몸과 휘장을 상징하였는데 붉은 천을 찢을 때 느린 움직임에서 점점 격렬하게 달려가는 움직임으로 신체의 움직임 속도를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고통과 좌절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웅크림과 엎드림, 고개 숙임과 컨츄렉션의 동작을 이용하여 점차 격렬하게 표현하였으며, 분노와 아픔의 표현에서는 직선과 도약 동작과 점프 동작을 이용하여 신체가 급격하게 확장됨을 보여주었다. 고통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동작을 긴장시키거나 이완시켜서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감고 아픔을 표정을 지음으로써 슬픔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때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서는 급격한 숨을 헐떡거리거나 깊게 들이마시는 호흡 동작을 통하여 고통과 좌절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고통의 강도가 약하고 강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심한 고통에서는 빠르면서 갑작스러운 동작과

격렬한 동작으로 표현하였고 약하거나 지속적인 고통은 느리면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천을 가슴에 끌어안고 온몸에 감싸는 현대무용 동작으로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표현하였다.

감정을 승화하는 클라이맥스 과정에서는 한국무용의 호흡법을 사용하여 호흡을 깊이 마시고 뱉는 표현을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오브제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춤의 리듬에 맞춰서 우아한 어르는 동작을 통해서 내면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모습을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2장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형상화한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붉은 천을 어깨에 메고 서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가면서 천천히 오브제를 하늘로 향해 들어 올려서 표현하였다.

긴장된 정서적 감정에서는 이완된 감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몸 안에서 밖으로 던지며 하늘로 향해 뿌린 후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무용의 살풀이 춤 동작을 이용하여 오브제를 떨어뜨리고 희망과 소망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표현하였다.

절정부에서는 춤의 감정이 고조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하늘에 뿌림으로써 슬픔을 이기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승화시켜 상징화하였고, 붉은 천의 곡선적이며 우연적인 형태를 통하여 소망을 실어 공중에 푸는 동작을 표현하였다. 이때 음악에는 주제에 적합한 가사가 사용되었는데 각 가사에 맞는 움직임의 통하여 작품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고 무대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공간적 이동을 적절히 사용하여 모든 동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3장에서 북소리 리듬에 맞춰서 너풀거리는 한삼을 사용하였다. 오브제 한삼은 움직임의 동선이 크고 화려하므로 극적인 감정 표현에 효과적이다. 조형적인 선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삼의 움직임의 폭을 확대하여 표현하였고 장중하고 파워풀한 표현에서는 한삼의 움직임이 긴장과 이완의 낙차가 크게 표현하였고, 섬세하고 유려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삼의 움직임을 작으면서도 섬세하게 움직여서 표현하였다.

춤은 춤추는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손과 발,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완전체로 조화를 이룬 ‘인간’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음과 영혼의 교향곡이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세계, 즉 사랑과 미움, 절망과 소망, 슬픔과 기쁨, 꿈과 이상, 그리고 경외심 등, 수많은 감정과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것들까지 다양한 음색의 표현적 ‘움직임’들을 통해 표출되는 하모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체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그 영혼의 깊은 공명이 신체의 리듬과 다이내믹스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진솔한 메시지인 것이다.⁶³⁾

인간의 움직임은 모든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기독교 무용의 정체성을 관객에게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예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안무자는 기독교적 영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움직임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3.3.2 오브제

오브제는 영어로 오브젝트(Object), 불어로 오브제(Objet)라고 부르며, 일상적인 물건을 예술 작품 안에서 안무가의 의도에 적합하게 상징적 도구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술적 매체이다. 오브제는 본래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벗어나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안무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사용된다.⁶⁴⁾

작품 「보혈」에서는 오브제로 1장과 2장에서는 붉은 천을 사용하였고 3장

63) 박영애(편).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주)내일이비즈, p.13.

64) 송현석. (2021). "오브제(Object)를 활용한 무용작품 <Other Side>의 창작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에서는 붉은 한삼을 사용하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연출하였다. 성경에서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귀한 보배로운 피를 의미한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벧전 1:19)

붉은 천 오브제는 단순한 시각적 소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며 기독교적 의미를 무용수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붉은 천의 부드러운 물리적 성질은 하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를 위해서 어깨에 감싸거나 하늘로 향해 뿌려서 표현하였다. 오브제의 붉은 색채는 피의 강렬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오브제의 움직임은 보혈이 인류의 죄를 덮어서 대속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희망찬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1장과 2장에서는 오브제로 붉은 천을 사용하였는데,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우면서 찢어지기 쉬운 특성을 이용하여 무용수는 붉은 천을 몸으로 찢으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점점 속도를 가하면서 급격하게 돌진하며 찢음으로써 십자가 사건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찢어짐을 표현하였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여셨음을 표현한 것이다.

보혈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귀하게 들어 올리거나 받쳐 들음으로써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오브제를 바닥에서 길게 깔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사랑으로 고난을 덮어주시심을 표현하였다.

붉은 천 오브제를 사용하여 인간의 고통과 슬픔, 불행을 해소하고 정확하는 예술적 승화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붉은 천 오브제는 고난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상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붉은 천을 감아내고 풀어내는 동작은 얽히고설킨 인생의 슬픔과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결단으로 향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붉은 천 오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길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을 무용의 언어로 담아내었고 삶 속의 고난과 절망을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관객들이 깊이 공감하도록 표현하였다.

3장에서는 붉은 천으로 제작된 한삼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사용하였다. 오브제로 사용된 한삼은 한국무용에서 손끝의 선과 움직임의 강조하는 주요 소품이며 전통적으로 내적 정서와 기원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쓰여 왔다. 특히 붉은색 한삼은 생명과 희생, 강렬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한삼을 감고 푸는 동작과 너풀거림, 팔로 큰 원을 그리는 움직임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곳곳을 함께 하심을 의미하며, 죄와 고난을 덮음으로써 정결케 하는 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오브제 붉은 한삼을 활용한 춤사위는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얻는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상징화 하였다. 따라서 붉은 한삼은 단순한 무용 소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그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제이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4)

오브제로 사용된 붉은색 한삼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3.3 음악

무용에서 음악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과 박자를 제공하고 감정적 분위기를 설정하며, 무용수의 움직임과 감정을 음악의 시각적 해석을 통하여 음악을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안무가는 음악의 각 음표, 박자, 리듬을 무용수의 몸짓으로 상징화하여 음악의 감정과 주제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무용수가 음악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움직임의 표현을 풍부하게 한다. 또한 스토리를 전달하고 작품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한다. 음악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감정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

[표 3-2] 음악

장구분	음악	시간
1장	음성음향 + “Dellage” (Ryan Choi)	5분 40초
2장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 스트리)	2분 10초
3장	“김철환” (창작 작품곡)	3분 0초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은 효과음, 음악, 음성언어를 이용하여 고난과 고통, 절망, 소망,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여 무용수의 감정과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디자인하였다.

1장의 전반부는 음성언어으로써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사용하여 관객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1장의 음악으로 Ryan Choi가 작곡한 “Dellage”를 사용하였는데 30초에서 2분 구간에서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현악기 선율을 이용하여 대립적 음색과 빠른 박자로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전달하였다. 2분에서 4분 구간에서 현악기와 피아노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하모니를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박자를 감소시켜서 점차적인 안정감을 조성하였다. 4분에서 5분 40초까지는 음악의 밀도를 높이고 규칙적으로 타격하는 타악기 리듬을 이용하여 극심한 고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2장의 음악은 기독교 음악인 “십자가의 전달자”를 사용하였다. 5분 40초에서 6분 30초까지는 피아노 음향을 기반으로 합창단의 폴리포닉 화성과 해금을 이용하여 웅장하고 애잔한 음향으로 격정적인 느낌의 심금을 울리고 동시에 은혜로운 느낌을 강조하였다.

6분 30초에서 7분 50초까지는 가야금의 트레몰로 주법으로 영적 결단의 지속성을 암시하고 음계를 상승시켜서 사명의 고귀함을 강조하였고 후반부에는 음향의 볼륨을 낮춰서 개인적 헌신의 순간을 표현하였다.

3장은 “창작 작품 곡”을 사용하였는데 장구와 북, 징과 소고로 이루어진 힘차고 기개 넘치는 멜로디와 피리와 대금으로 이루어진 서정적이면서도 감정이 깊이 배어나는 선율들이 어우러짐으로써 보혈의 능력을 표현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다. 전통적인 한국무용 음악의 구조를 따르되 각 음악적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리듬과 강렬한 비트로 곡의 흐름을 이끌고, 중요한 순간마다 웅장함과 긴장감을 극대화하여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하는 역할에 효과적이었다. 이를 통하여 무용수의 힘찬 동작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보혈의 힘과 능력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3.3.4 의상

무대의상은 단순한 의상의 의미를 넘어서, 공연에서 색상과 전반적 느낌을 통하여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여 안무자의 예술적 표현에 사용된다. 무용에서 의상은 무

용수의 움직임은 조화롭게 강조함으로써 관객에게 안무자의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밝은 색상의 의상은 활기차고 가벼운 분위기를 나타내며, 어두운 색상의 의상은 깊이 있으면서 분위기 있는 느낌을 제공한다. 이때 의상으로 인하여 무용수의 움직임 전달이 적절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무용 동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조명과도 조화되는 원단으로 제작되어 관객들에게 안무자의 의도 전달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의 의상은 무용수 1, 2, 3이 1장과 2장에서 착용하고 있다. 무용수 1은 좌절과 고난으로 몸부림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흰색 상의와 검은색의 하의의 의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오브제 천과 흐름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의상의 질감으로 실크 느낌의 소재와 시폰으로 무대에서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동작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정 통 넓은 바지로 동작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고 도약과 점진적 움직임에서 휘날리는 의상 자락은 움직임을 강조하여, 동작을 더욱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하였다.

무용수 2가 착용한 상, 하의와 무용수 3이 착용한 하의는 검정색인데 검정색은 전통적으로 슬픔, 절망, 그리고 어두운 계절을 상징한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목적에 적합하다.

무용수 3이 착용한 상의 셔츠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상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여러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게 착용하였다. 무용수 2, 3이 착용한 통바지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동작을 수행하는 목적에 있어 적합하며 이는 무용수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동작의 유연성과 표현력을 높여준다.



[사진 3-1] 1장, 2장 의상

3장에서 무용수 1, 2, 3은 흰색 민소매 상의와 흰색 플레어스커트 하의를 착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가볍고 얇은 소재의 의상 자락은 북소리의 웅장하고 강한 비트에 맞추어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의 표현하였다.

무용수의 동작이 공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이 무용수의 움직임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느낌을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고 민소매 상의는 무용수 몸의 선을 강조하여 동작이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게 하였다.

무용수의 의상은 조명의 빛의 반사와 상호작용을 해 동적이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하얀색은 거룩함과 순결, 평화, 순수를 상징하므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흰색으로 착용하여 흰색이 상징하는 거룩함과 순결의 의미가 표현되도록 하였다.



[사진 3-2] 3장 의상

[표 3-3] 무용 작품에서 색상의 상징적 의미

색상	상징적 의미
하얀색	거룩, 순결, 평화, 순수
검정색	슬픔, 절망, 어두움

3.3.5 조명

무대조명은 색상, 밝기, 움직임을 통해 스토리에 따른 다양한 감정선을 형성하며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색조의 빛으로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고 강렬한 순간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화려한 조명으로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의상이나 무대, 소품과 같은 다른 무대 요소들과 통합되어 응집력 있고 세련된 시각적 요소를 형성하며 빛의 특징인 무대 공간을 명확하게 자르는 효과로 무대의 피사계심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완벽한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조명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조성함으로써 관객이 느끼는 감정과 심리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무용수의 동작과 감정을 설득력 있

게 한다. 이는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기독교 창작 작품 「보혈」에서는 Back light 조명, Wash light 조명, PAR can 조명을 주 조명으로 사용하였으며 보조조명으로 Front light 조명, Side light 조명, Top light 조명, Spotlight 조명, Moving light 조명, Profile spot 조명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용하였다.

[표 3-4] 색채 조명별 RGB code와 감정표현

색상명	RGB	작품에서의 감정표현
선명한 빨강	#FF3030	열정감과 긴장감 상승
딥 블루	#1E90FF	집중력과 평온함 상승
연보라	#9370DB	창의성과 환상적 분위기 상승
라임 그린	#32CD32	활력과 균형감 상승

1장 조명은 붉은색 Side lighting 조명을 좌측에서 조사하는 상태에서 무용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함으로써 붉은 천을 찢는 장면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용하였다. 사이드 라이팅 조명을 사용하여서 무용수의 유연한 움직임과 신체의 선이 극적으로 강조되게 보이게 하였으며, 얼굴표정 보다는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이 강조되도록 사이드 조명이 사용되었다.

무용수가 무대 중앙에 등장하면서 흰색 Back light를 사용하여 무용수의 몸 라인이 투영되는 동시에 청색 LED 스트립 라이트를 무대 후면에서 수평 빔을 형태로 사용되어 공간의 깊이를 확장되도록 사용하였다. 이후 45도 각도의 Top light를 70% 유지함으로써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 길이를 2m~3m 범위로 변조되게 표현함으로써 무용수의 신체 확장성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관객의 시선을 상승 축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좌절과 고난이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1장 후반부는 탐라이트 조명을 사용하였는데, 무용수의 수에 따라서 증감하

여 사용함으로써 여러 명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난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RGB LED 패널을 장착한 2700k의 색온도(따뜻한 톤)와 6500k(차가운 톤) Upper Horizon light 여러 개를 DMX 제어기를 이용해서 제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이내믹한 군무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추적하였고 특히 수직 점프 시의 공중 부양 효과가 증대되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난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과제임을 표현하였다.

2장 조명은 Back light 조명을 이용했는데, 무대 후방에서 조명을 투사함으로써 무용수의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이 기법은 무용수의 신체 라인을 추상화하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무대 깊이감을 확장함으로써 공간적 환영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특히 딥블루 색상 조명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심화하여 표현하였다.

3장 조명은 45도 광역의 프레넬 조명을 이용하여 한복 소재의 의상이 3차원적 질감이 나도록 재현하였고, 발 디딤새의 신체의 움직임의 세분화하여 입체적으로 포착되도록 하였다. 클라이맥스로 진행될 때는 노란색 탑라이트 조명 여러 개를 추가하고 4개의 LED Top light 조명을 추가하여서 하나님의 보혈과 이를 통한 승리와 자유를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3.3.6 무대 공간 사용

무대 공간은 무용수의 신체와 함께 스토리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넓은 무대는 무용수들이 더 크고 역동적인 움직임과 큰 대형 구조를 펼칠 수 있으므로 웅장하고 장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양재 M 극장 무대는 작은 편이라 관객과의 밀접한 전달이 가능하며 무용수의 표현과 뉘앙스와 움직임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독교 창작 작품 「보혈」은 무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작품 주제와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구성하여 양재 M 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극장 무대는 프로시니엄 형태로 무대 구분은 [표 3-5]와 같이 무대 구역이 구분되었다.

[표 3-5] 프로시니엄 무대(Proscenium Arch Stage) 구역 구분 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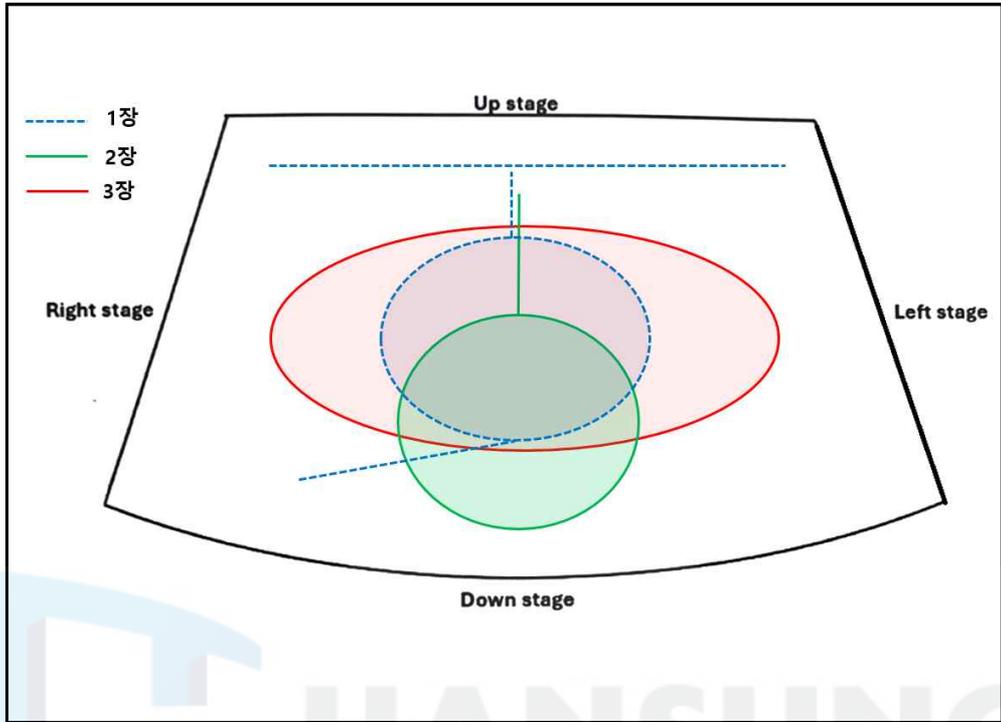
하	USR Up Stage Right	USC Up Stage Center	USL Up Stage Left	상
	CSR Center Stage Right	CS center Stage	CSL center Stage Left	
수	DSR Down Stage Right	DSC Down Stage Center	DSL Down Stage Left	수

1장의 전반부에서 무용수 1은 상수(USL)를 시작점으로 하수(USR)로 직선 공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중앙(USC)과 중앙(CS)에서 낮은 높이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드러내었다. 후반부에 무용수 1은 상수(USL)에서 시작하며 무용수 2는 하수(USR)에서 시작되었다. 무용수 3은 하수(USR) 공간을 사용 후 하수(DSR)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무용수 1, 2, 3은 하수(DSR)과 중앙(CS), 상수(USL) 공간을 사용하여 고난을 강하고 직선적으로 표현되도록 무대공간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 무용수 1은 중앙(USC)에서 중앙(CS)을 지나서 중앙(DSC)로 직선 무대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상징화하였다. 또한 무대 전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고난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망함을 표현하였고 중앙(USC)에서 상수(USL)로 퇴장한다.

3장에서 무용수 1은 상수(USL)에서 시작하고 무용수 2는 하수(USR), 무용수 3은 상수(USL)에서 시작하며 무용수 세 명이 삼각구도, 또는 대칭구도를 이루어 무대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보혈의 능력이 극대화되게 보이도록 사용하였다.

65)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연극과 인간. p. 71.



[그림 3-1] 작품에서의 무대 사용

IV. 작품 분석

제목 : 보혈 (The Blood of Jesus)

안무 및 연출 : 김은영

출연 : 김은영, 노도은, 이수하

구성 : 총 3장

음악 : 1장 “Dellage” (Ryan Choi 작곡), 음성음향 (장재기 목상 시리즈)

2장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 스트리 작사,작곡)

3장 “창작 작품곡” (김철환 작사,작곡)

발표 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PM 7시

발표 장소 : 양재 M 극장

작품 시간 : 총 10분 40초

4.1 제1장 : 예수님의 찢기심

4.1.1 안무의도 및 내용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견고한 휘장이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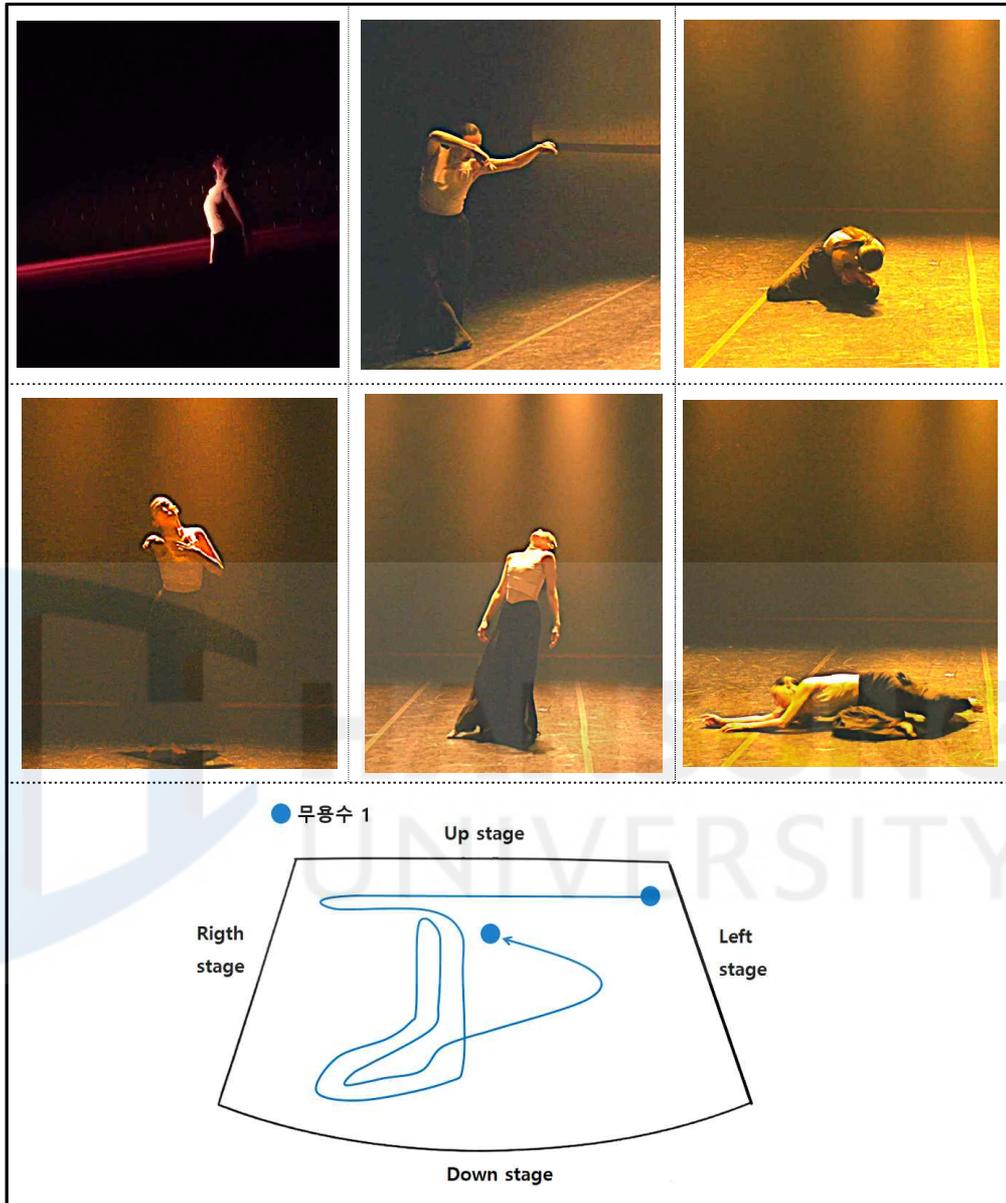
인간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과 심리적 위축, 그리고 낙심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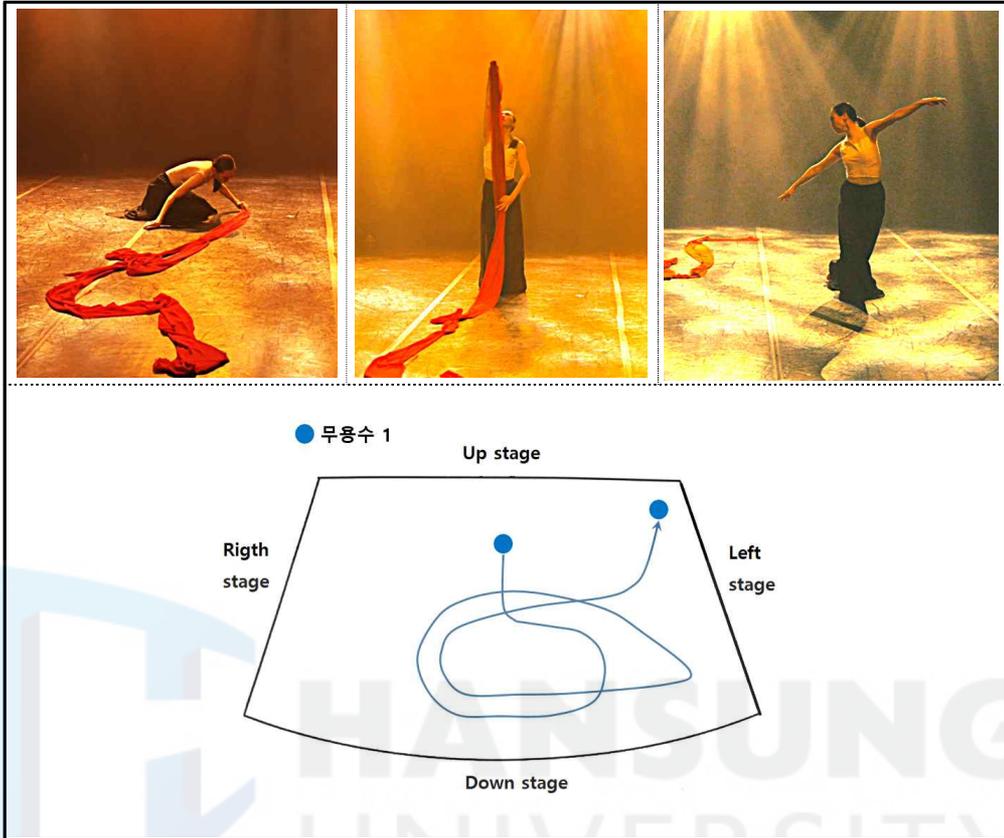
움직임 1에서 무용수 1은 무대 상수(USL)에서 등장하며 상수(USL)에서 하수(USR) 가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놓여있는 붉은 천을 하수(USR) 방향으로, 몸으로 찢으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점점 속도를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돌진한다. 뒷걸음으로 걸어 중앙(USC)에서 서서히 중앙(CS)로 나오므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막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을 연출하였고 동시에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표현하였다.

중앙(CS)에서 서서히 중앙(DSC)을 지나 하수(DSR)로 이동하면서 고난과 괴로움의 모습,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표현하면서 바닥을 향해 시선을 둔 상태로 몸통을 움츠린다. 뒷걸음치며 다시 중앙(USC)에서 눈을 가리는 동작과 입을 막는 움직임을 하면서 중앙(CS)을 지나 하수(DSR)를 거쳐서 상수(CSL)로 이동하며 중앙(USC)로 이동하면서 절망과 고통으로 가슴을 치고 고통과 아픈 고난을 표현하며 무거운 저음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처절한 고난을 더욱 고조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4-1] 움직임 1

움직임 2에서 무용수 1은 중앙(USC)에서 무대 바닥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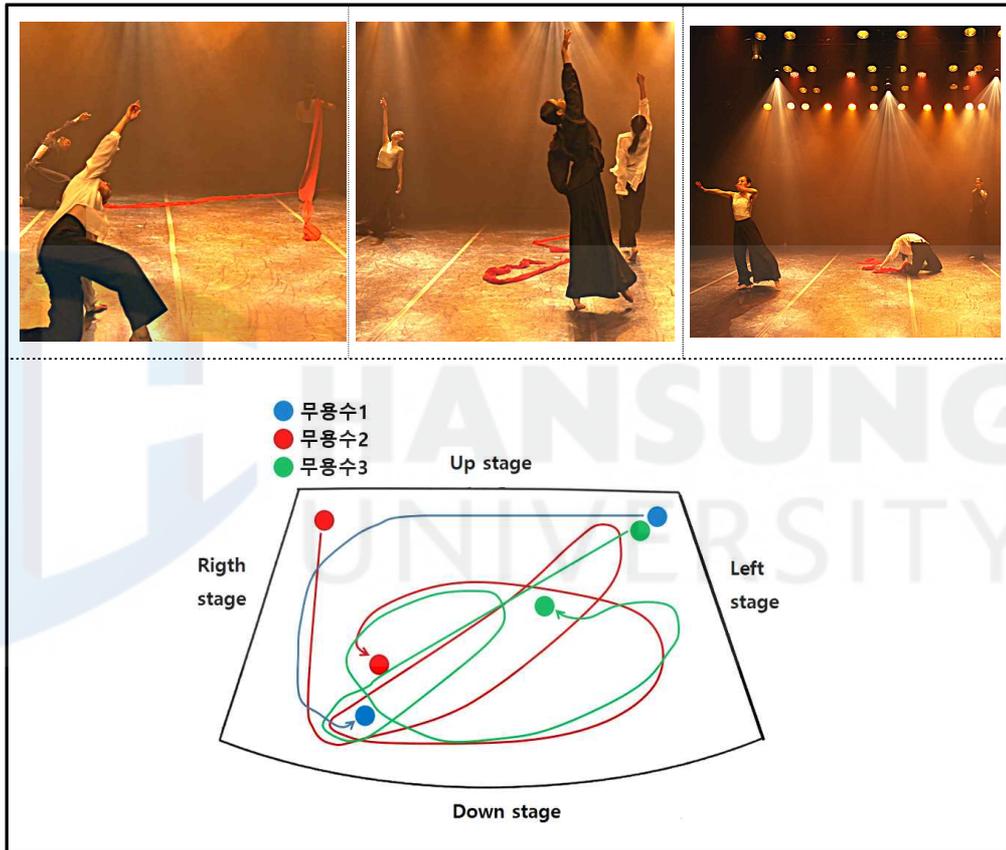
[그림 4-2] 움직임 2

움직임 3에서 무용수 2는 하수(USR)에서 박자가 빠르고 강한 피아노 소리에 빠르게 던지면서 나온다. 무용수 3은 상수(USL)에서 등장하여 붉은 천을 허리에 두른 상태에서 하수(DSR) 쪽으로 던지면서 나온 후 현대 무용의 움직임으로 바닥에 앉았다가 구르며 다리를 뻗고 차면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무용수 1은 상수(URL)에서 등장하여 중앙(USC)으로 던지면서 하수(CSR)로 이동하여 하늘로 팔을 뻗으며 입을 막고 가슴을 치는 동작으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답답함과 막막함의 동작을 표현하였다.

무용수 2는 상수(DSC)에서 나와서 상수(USL)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닥에서 뒤로 구르면서 앉는 동작으로 고조된 인간의 고뇌와 감정을 표현하였다.

무용수 3은 하수(DSR)에서 바닥에서 무릎으로 구부려 앉으면서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는 동작으로 격하고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고 괴로워하는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였다. 무용수 1과 무용수 2는 넓은 무대 공간 바닥에서 빠르고 강하게 구르고 쳤다가 급하게 일어났다가 앉고 던하는 동작으로 인간의 시련과 아픈 감정 표출을 표현하였다.



[그림 4-3] 움직임 3

4.1.3 음악 및 오브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낭독될 때 무용수는 서서히 걷다가 점진적으로 속도를 증가시켜 움직이고, 잔잔한 음률로 슬픔을 표현하는 음악에서

는 낮은 음역의 어두운 소리를 이용함으로써 슬픔과 변민의 감정을 강조하였다. 느린 박자의 피아노 선율을 배경음으로 사용하여 인간 내면의 참담함과 깊은 고뇌로 괴로워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빠르고 격렬한 리듬을 통하여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순발력 있게 표현하였다.

이때 전체적 음악 형식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음악의 진행은 주제 제시와 발전 및 재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아노를 주요 멜로디로 사용함으로써 곡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합주를 통하여 발전 부분에서 다양한 변주를 사용하였다. 첼로는 저음부를 담당함으로써 곡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하여 아픔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더 깊은 절망감을 느껴지도록 사용하였다.

오브제는 폭 150cm에 길이 12m 크기의 붉은색 시폰 천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찢어진 것을 상징화하여 사용했으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화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사진 4-1] 오브제. 긴 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의 의미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임을 뜻하며, 이는 곧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4.1.4 무대장치 및 조명

조명은 LED PAR 조명을 Top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무대 전체를 고르게 밝힘으로써 무용수 1의 그림자가 최소화되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확장하였다. 또한 Top light 조명은 무용수의 움직임이 돋보이게 함으로써 인간의 내적 고통의 표현을 위한 동선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는 붉은색 Fresnel 조명을 Cross light로 우측 대각선 방향에서 무용수 1의 바닥 방향으로 비춰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화하였다.

노란색 저조도 Spotlight 2개를 Down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무용수 1을 직접 비추되 저조도 광량을 사용함으로써 발 아래의 붉은 조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움직임이 충분히 집중되도록 하였다. 무용수 1이 예수님의 보혈을 들어 올린 후에는 보혈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았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색 Fresnel Cross light를 서서히 광량을 줄이다 제거함으로써 이를 표현하였다.



[사진 4-2] 조명 1

후반부는 Front 조명을 북소리 효과에 따라 켜다가 끄기를 반복하는 연출을 통해 장면 전환을 표현하였다. Dark amber(황색)는 위압, 과시, 비판, 피상 등을 의미하고 있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조명으로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황색 조명을 넓고 고르게 전체 배경을 비추도록 사용하였으며 Side light 조명을 통해 무용수의 격렬한 움직임이 잘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의 전개와 위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채도와 조도의 변화를 통해 주제가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후반부는 Fresnel Spotlight 3개를 무대 균등한 위치에 위치시키고 Down light 방식으로 비춰서 무대 중앙 가로 방향을 비춰서 무용수 1의 표정과 동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때 부드럽고 낮은 채도의 빛을 확산시킴으로써 고통과 사랑이 어우러진 예수의 보혈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추가 조명으로 주광색 LED PAR 조명 여러 개를 Top light 방식으로 무대 전체에 사용함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여러 조명을 섞어서 사용함으로 복잡하고 다채로운 현대 사회의 무질서를 추상화하였고 현대인(무용수 1,2,3)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진 4-3] 조명 2

4.2 제2장 : 십자가의 소망

4.2.1 안무의도 및 내용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절망 가운데 일어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리라 결단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깊이 있게 실천하는 영적 여정이었음을 담아내고 싶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힘과 위로로 인해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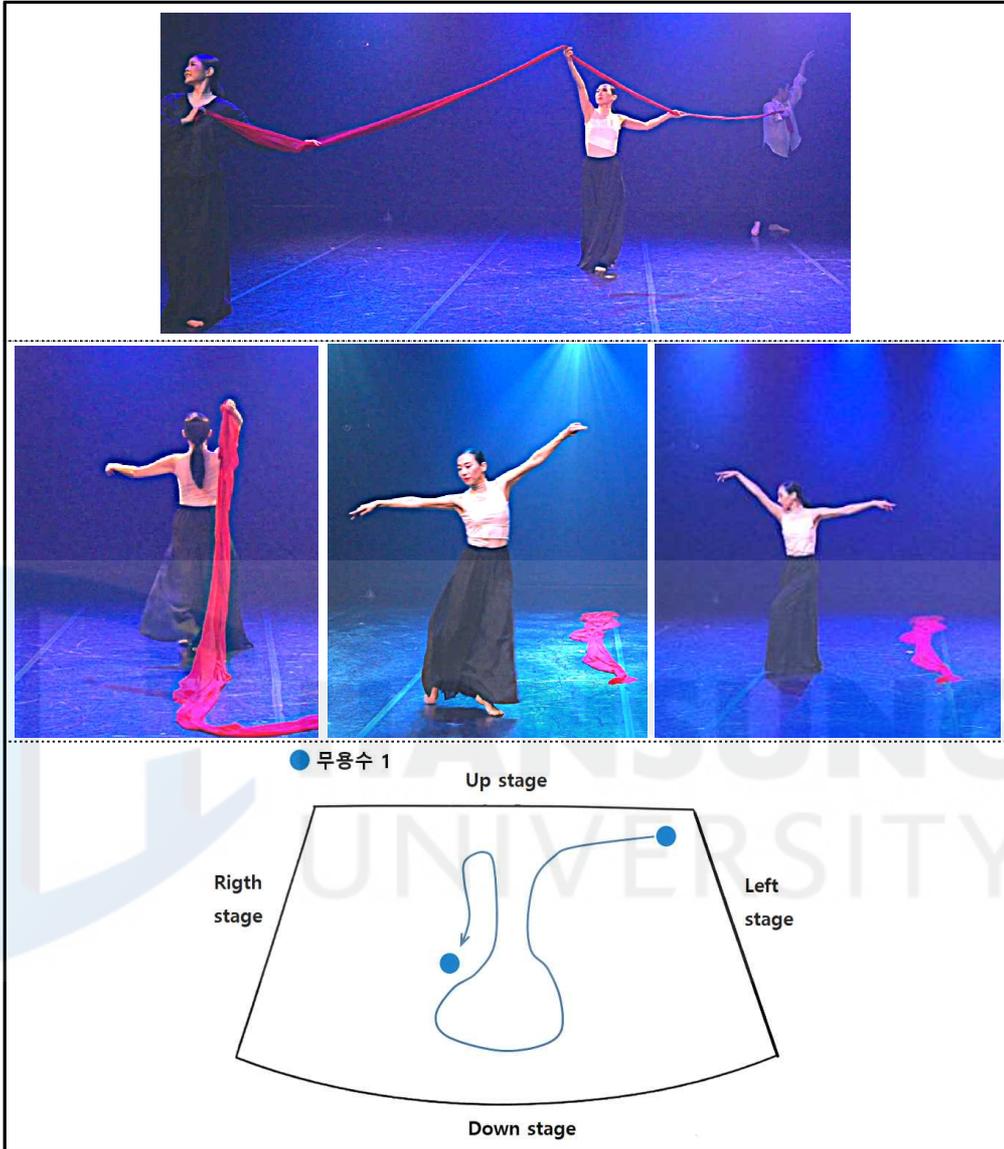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움직임 4에서 무용수 1은 상수(USL)에서 등장하며 효과음 바람 소리에 맞

취서 붉은 천을 하늘 높이 들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서 있다. 무용수 3은 중앙(CS)에서 붉은 천을 들고 상수(USL)로 이동하여 무용수 1과 만나면서 무용수 3이 들고 있던 천을 귀하게 받아서 받쳐 든다. 무용수 2는 하수 (DSR)에서 천을 어깨에 감싸듯 늘어뜨려 걸친 상태로 서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보혈이 믿는 자를 덮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긴 붉은 천은 상수(USL)에 위치한 무용수 1을 시작점으로 하여 중앙(CS)에 있는 무용수 2의 어깨를 지나 하수(DSR)에 자리 잡은 무용수 3의 어깨까지 길게 이어져 있으며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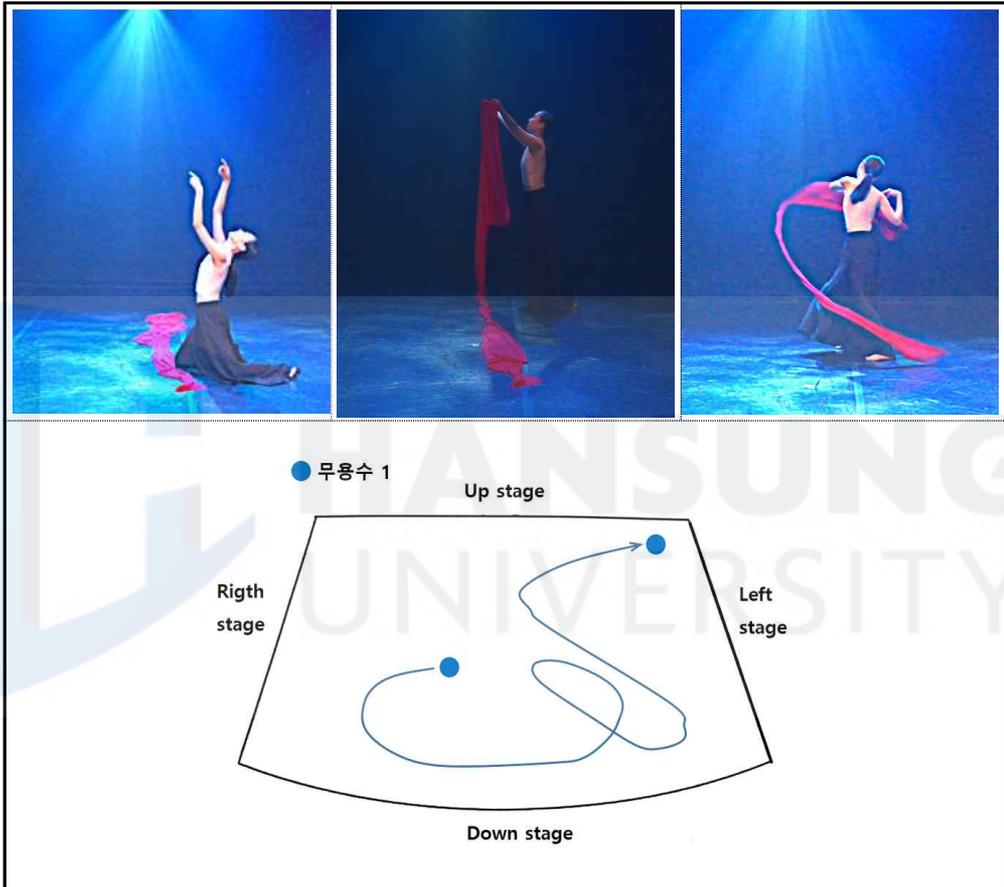
무용수 3은 하수(USR)로 퇴장하고 무용수 2는 상수(USL) 쪽으로 서서히 퇴장한다. 무용수 1은 중앙(CS)위치에서 서정적인 한국무용 동작을 이용해서 들고 있던 붉은 천을 공중으로 높게 던져 휘감는 움직임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였다. 중앙(DSC)에서 뒤돌아서 중앙(USC) 방향으로 붉은 천을 무대 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서 앞으로 돌아서 중앙(CS) 방향으로 천을 밝으면서 걸어 나옴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가리라는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힘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고 소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4-4] 움직임 4

움직임 5에서 무용수 1은 서정적인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를 배경음악에 맞춰서 중앙(CS)에서 하수(DSR)를 지나 중앙(CS)으로 이동하고 바닥에 놓인 붉은 천 주변을 큰 원을 그린 후 옆드렸다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의 모습을 전달하고 그 기도가 주님께 열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상수(DSL) 뒤쪽에서 중앙(CS)을 거쳐서 중앙

(USC) 쪽으로 이동하고 붉은 천을 소중히 잡아 하늘로 들어 올린 후, 깊은 호흡을 하면서 가슴 쪽에서 휘몰아치듯 감아서 그리스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수 (USL) 쪽을 바라보며 오브제를 위로 뿌리며 퇴장한다.



[그림 4-5] 움직임 5

4.2.3 음악 및 오브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Ministry)에서 발표한 ‘십자가의 전달자’ CCM 찬양곡을 사용하였으며 가사를 통해 감정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에 안무자의 의도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었다. 이 곡

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의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곡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 해금, 북이 사용되었는데 이 악기들은 감정적인 깊이와 전통적인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해금은 구슬프고 애달픈 소리가 특징인데 그 음색 때문에 감성이나 정서를 표현함에 뛰어났으며 무용수의 감정적 깊이를 강조함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해금은 전통적인 느낌이면서도 한국무용 호흡법과 움직임에 잘 어우러지는 악기였다. 가사는 바울 사도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으며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서 안무자의 안무 의도인 십자가의 구원과 소망 표현에 적합하였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적합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오브제는 폭은 75cm이고 길이는 6m 길이의 붉은색 시폰 천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상징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 천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4.2.4 무대장치 및 조명

도입부 조명은 주광색 Spotlight 2개를 좌측 Cross light 방식으로 비춰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길이가 긴 붉은 천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한 결단의 마음과 나약한 내적 본성으로 갈등하는 무용수 1의 움직임이 잘 전달되도록 하였다.

중반부는 여러 개의 다크 블루 색상의 LED PAR light를 Top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평온함과 안정감을 강조하였고 좌우 상부에 주광색 Side light를 Cross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벗어나 십자가를 향한 소망과 결단의 마음을 표현하는 무용수 1의 동작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하반부는 좌우 Spotlight를 제거하고 밝고 투명한 느낌의 파란색 LED PAR light 여러 개를 Down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더욱 담대한 확신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확정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깊고 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이 잘 표현 되도록 하였다.



[사진 4-4] 조명 3

4.3 제3장 : 보혈의 능력

4.3.1 안무의도 및 내용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공급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한삼을 힘차게 휘날리고 역동적으로 하늘로 향해서 뿌리며 한국의 전통적인 춤사위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또한 보혈의 능력을 한국 고유의 북소리를 이용하여 리듬감과 역동적인 에너지로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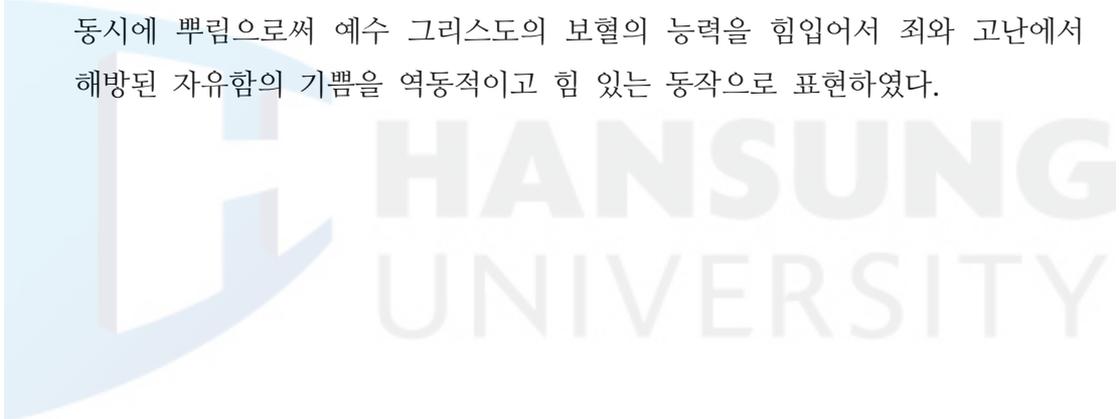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보혈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영, 육, 혼이 소생됨으로써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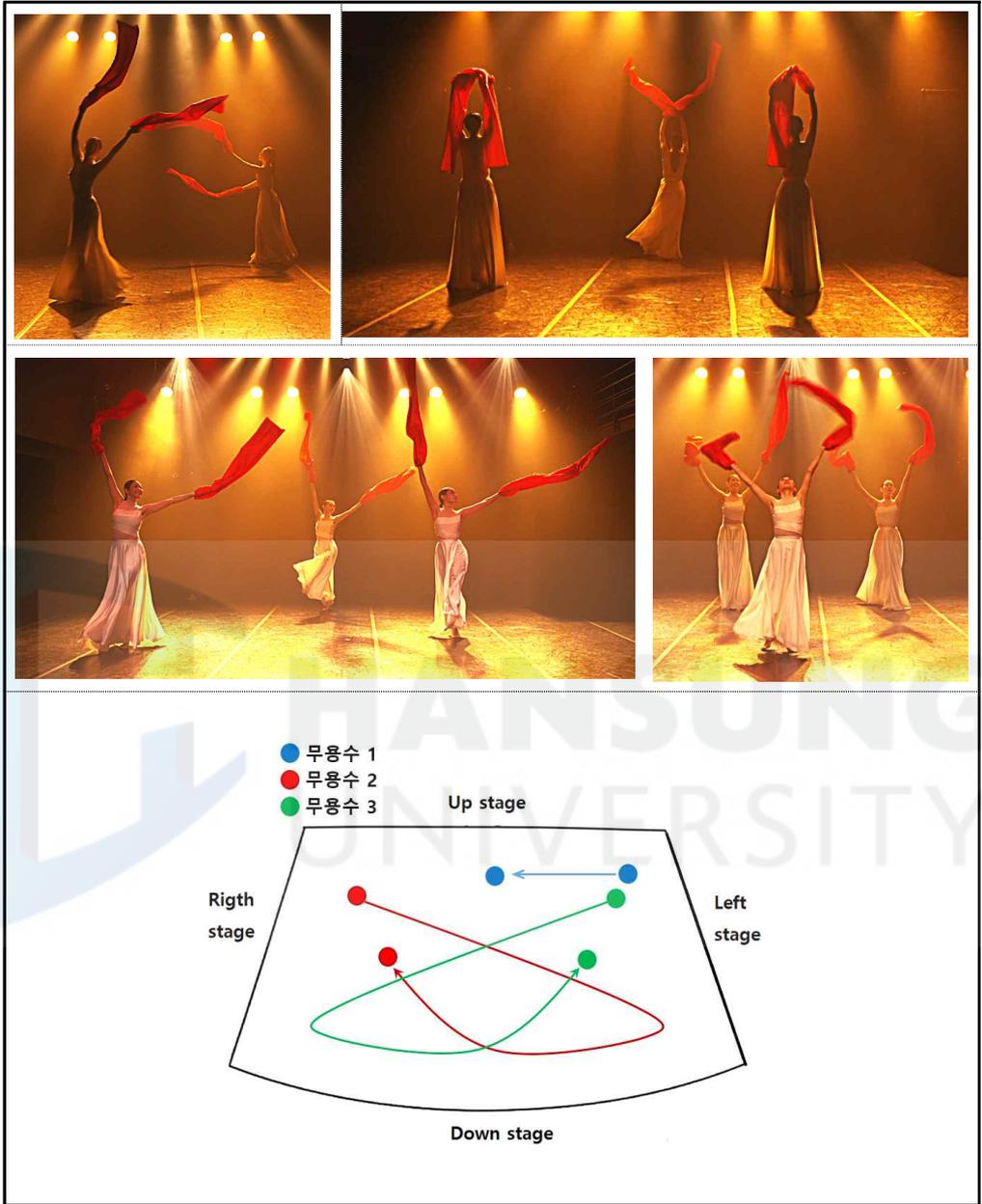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움직임 6에서 무용수 2는 하수(USR)에서 붉은 한삼을 힘차게 뿌리며 등장하여 상수(DSL)로 이동하며 강한 북소리와 함께 양손에 낀 한삼을 하늘을 향해 뿌린다. 뒤로 던지면서 하수(CSR)에서 한쪽 발에 체중을 두고 다른 한쪽 다리로 빠르고 힘차게 공중으로 다리를 던지듯 치는 바뜨망 자세로 한삼을 뿌린다.

무용수 3은 상수(USL)에서 한삼을 뿌리며 빠르게 등장하면서 중앙(CS)을 지나 하수(CSR)에서 한쪽 다리를 차며 들어 올리고 한삼을 공중으로 뿌린다. 상수(DSL)로 나가면서 한삼을 강하게 뿌린다.

무용수 1은 상수(USL)에서 한삼을 날리면서 나와 중앙(USC)에서 한삼을 동시에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고난에서 해방된 자유함의 기쁨을 역동적이고 힘 있는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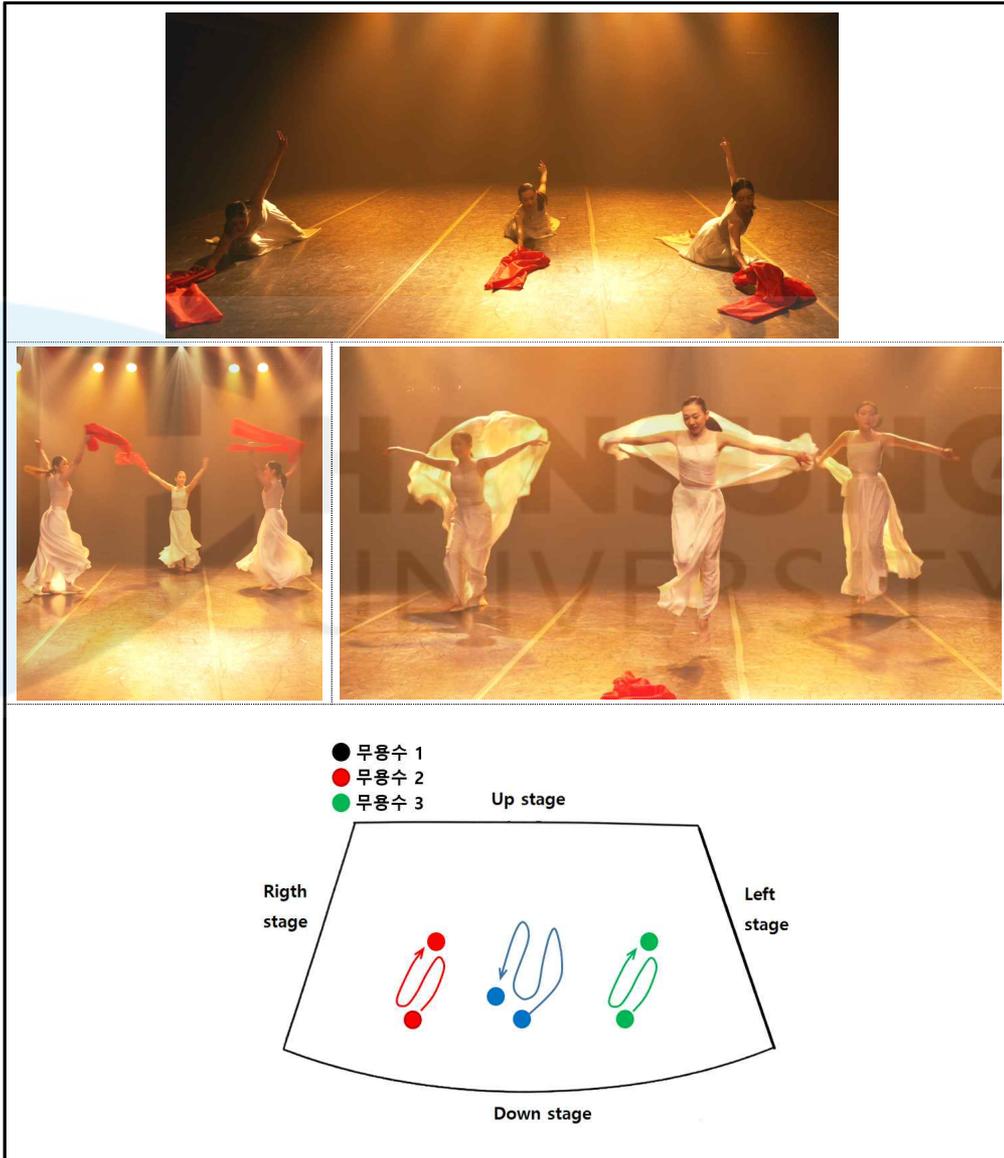




[그림 4-6] 움직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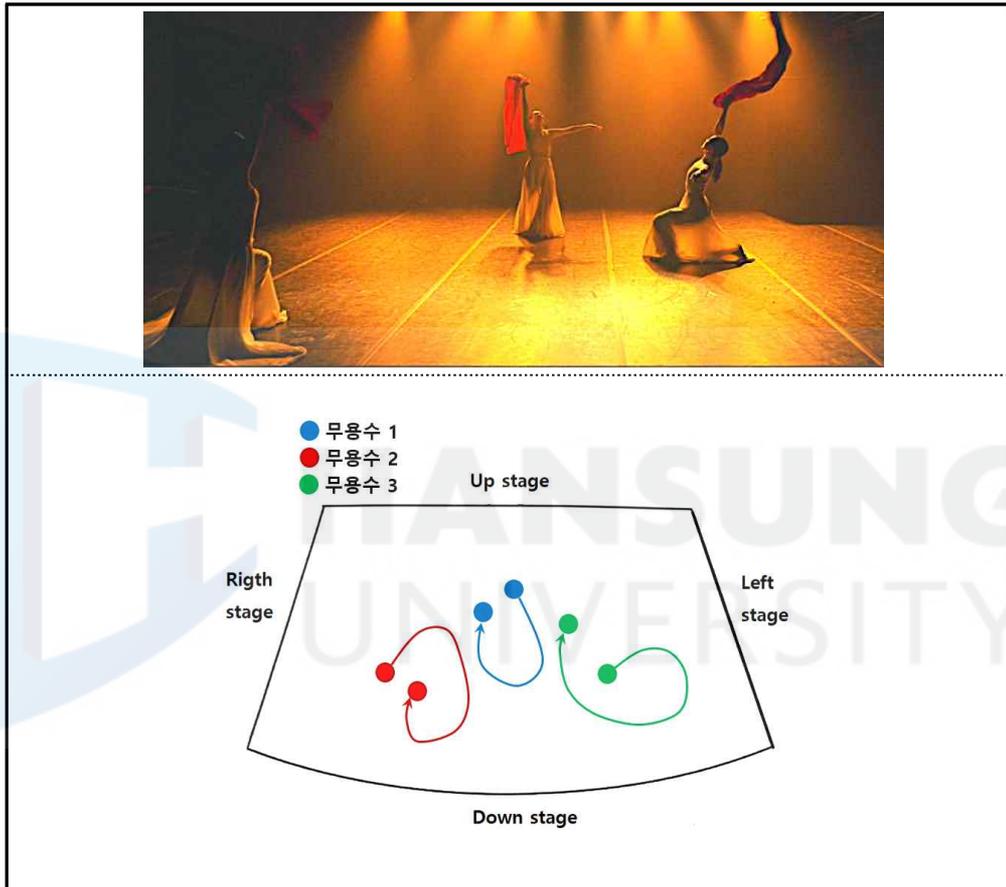
움직임 7에서 무용수들은 한삼을 바닥에 내려놓고 대형을 바꾸어 가며 주로 삼각 구도를 이루어 무대공간을 사용하고 중앙(DSC)로 넓게 위치하면서 한삼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국무용의 호흡과 움직임으로 조화를 주었다. 중앙

(CS)에서 다시 중앙(DSC)에 놓인 한삼을 잡아 중앙(CS)로에서 한삼자락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듯이 하늘을 향해 뿌리는 움직임은 표현함으로써 생동감과 파워풀한 느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는 값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며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4-7] 움직임 7

움직임 8에서 무용수 2는 하수(CSR) 무용수 1, 무용수 3은 중앙(CS)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효과음과 강한 북소리와 함께 한삼을 뿌려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4-8] 움직임 8

4.3.3 음악 및 오브제

사용된 음악은 작품을 위해 창작한 곡으로, 이 곡의 멜로디는 피리와 대금이 주도하였고 해금이 감정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피리는 전통적인 한국무용 음악의 구조를 따라서 낮은 음역에서 힘찬 기상을 뿜어내고, 사용된 각 악기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는데 타악기들은 리듬을 구성하였으며 장구와

북은 리듬을 주도하였고 징과 소고가 강한 비트를 강조하였다. 장구는 다양한 리듬 패턴을 통해 곡의 흐름을 유지하였고 한삼을 힘 있게 뿌리고 던지는 동작에 힘찬 기상을 강조하는데, 쓰임으로 보혈의 힘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징은 곡의 중요한 순간에 강한 비트를 강조하였고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완성하였다. 사용된 음악은 한국무용의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를 잘 담아내도록 창작되었으며 특히 웅장한 북소리로 동작과 감정을 효과적 강조하여 전달 할 수 있었다.



[사진 4-5] 오브제. 붉은 한삼

오브제는 붉은 천으로 제작된 한삼을 사용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화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는 아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 나라. (출 12:23)

붉은 한삼 오브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였으며, 이는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고(유월, passover)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어린양의 피를 상징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며 그

리스도인이 보혈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붉은 한삼을 사용하였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조명으로 붉은색 Overhead wash light를 Top light 방식으로 사용하여 충만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보혈의 능력을 표현하였고 여러 개의 황금색 Spotlight를 이용하여 보혈의 능력을 통한 승리의 기쁨과 치유의 감격을 표현하는 무용수 1, 2, 3의 역동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였다.

밝은 노란색 PAR can light 여러 개를 이용해서 승리의 기쁨과 보혈의 충만한 느낌이 무대 전체에 가득 차도록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사진 4-6] 조명 4

V. 결론

본 연구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주제로 한 기독교 창작무용, 「보혈」에 대한 작품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난은 인간 삶의 보편적 현실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좌절과 내적 질문을 불러온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난 속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배우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 삶을 책임지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본 작품 「보혈」을 주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작품의 구성 및 표현적 요소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의미하며, 보혈은 죄 사함과 영혼 구원과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둘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3개의 장르로 구성하였으며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죄 사함과 영혼 구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능력임을 주제로 삼았다.

도입 단계에서 견고한 휘장이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됨을 표현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됨을 표현하였다.

이후 결말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며, 새

로운 생명과 영적 회복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셋째, 작품의 구성 및 표현적 요소 측면에서 보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음악, 춤, 오브제, 의상, 조명 등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소망과 회복의 열쇠임을 기독교 예술 무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창작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삶에 찾아왔던 크고 작은 고난의 순간들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인생에서 부딪혔던 수많은 문제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 앞에 섰을 때마다, 연구자는 스스로 처했던 문제를 해결해 보려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간절히 주님을 찾곤 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러한 경험들은 작품을 창작하는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작품 「보혈」을 통해 기독교 관점에서 고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있기에 보혈은 우리를 살리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또한, 보혈의 가치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든 죄와 고통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임을 표현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기독교 창작무용이 일반 대중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보혈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얻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였으며, 향후 보혈과 관련된 기독교 창작무용이 더 활발하게 창작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혈의 죄 사함과 부활과 구원에 관한 위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교만. (2003). "욥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식. (2011). 『무대감독』. 서울 : 연극과 인간.
- 김희성. (2004). "신약성서의 십자가 이해". 『교수논총 = (A)collection of treatises』, 16, p53-81.
- 박영애(편). (2023). 『기독교 무용을 위한 실제』. 서울: (주)내일이비즈.
- 박요셉. (2024).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충북: 하늘빛출판사,
- 배철현. (2002). "Creatio Ex Nihilo?". 『종교학연구』, Vol 21,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p.29.
- 서동수. (n.d.). "요한문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다차원적 해석에 따른 구원론의 단계들". 한일장신대학교, p.112.
- 송현석. (2021). "오브제(Object)를 활용한 무용작품 〈Other Side〉의 창작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자연. (2010). "칼빈과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영. (2012). "루터와 칼빈의 십자가신학 비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 (2012). "칼빈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신 인식과 인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p.67.
- 이은원. (2004). "폴 틸리히의 죄개념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선. (2011). "무용창작작품 「Free…… at Last!」에 나타난 고난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재승. (2014). 『7인의 십자가 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존 스토틀. (2023). 『그리스도의 십자가』. (황영철, 정옥배 역). 서울: Ivp.
 최종호. (2010). “악의 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신학적 고찰“. 『한국조직신학
 논총』, 28, pp. 281-309.
 Hinn, Benny. (1994). 『예수님의 보혈』. (오복수 역). 서울: 은혜출판사.
 Maxwell Whyte. (2009).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전의우 역). 서울:
 규장,

2. 인터넷 자료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김진규. (2021). “고난설교의 방법: 고난을 해석하는 6가지 모델과 ‘타인의 열
 굴’ 이해”. 테오스앤로고스. <https://theosnlogos.tistory.com/1045>
 심지형. (2017). “요한복음 강해41.하나님의 일을 위해 소경된자”. 기쁜우리교
 회. http://joywoori.org/bbs/board.php?bo_table=board_15&wr_id=107
 안인섭. (2017). “성도의 고난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이해(벧전 4:12-19)”.
 리폼드뉴스. <https://www.reformednews.co.kr/6488>
 양은익. (2018). “십자가, 예언의 성취”. 들꽃교회. <http://grassch.com/?p=4762>
 오요한. (2006). “출애굽기 3장 강해1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대학생성경일
 기선교회. http://cnuhf.co.kr/layout/res/home.php?mid=11&go=pds.list&pds_type=2&s_head=%EC%B6%9C%EC%95%A0%EA%B5%BD%EA%B8%B0&start=40&num=129&s_key1=&s_que=
 우진성. (2018). “죄(罪)(ἁμαρτία 하타)에 대하여”. ibp.
<https://ibp.or.kr/wordspostachio/?bmode=view&idx=2751153>
 이지혜. (2022). “예수님, 죽음의 고난 통해 순종과 온전해지는 길 보여주셔”.
 크리스천데일리.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2713>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보혈 (The Blood of Jesus)
발표 일시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발표 장소	양재 M 극장
주 최	한성대학교
연출 및 안무	김은영
출 연	김은영, 이수아, 노도은
음 악	1장 음성음향(로마서 5장 8절), “Ryan Choi-Dellage” 2장 “십자가의 전달자” 3장 “창작 작품곡”
작품 시간	10분 50초
사 진	임여진
영 상	김찬호

2. 공연 프로그램

HANSUNG UNIVERSITY

2024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기독교무용전공
석사학위 청구작품 발표회**

2024. 11. 18 (월) 오후 7시
M극장

HANSUNG UNIVERSITY

무용학과 교수
박영애 교수 (무용이론 및 기독교 무용)
김남용 교수 (한국 무용)
박재홍 교수 (발레 리코장)
정석순 교수 (현대 무용)

무대감독
손성현

조형 디자인
강원석

촬영 감독
김찬호

디자인
김아름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HANSUNG UNIVERSITY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성선동2가) 한성대학교
TEL: 02-760-4107 | www.hansung.ac.kr

작품 제목 / **보혈**

안 무 자 / 김은영

안무 의도 /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내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

작품 내용 /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날, 휘장이 찢어짐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임을 예수님의 값없이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나의 죄성과 삶의 고난들 속에서 몸부림 십자가의 삶!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온 땅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승리를 외친다.



김은영



이수아



노도은

ABSTRACT

A Study on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Blood of Jesus」

Kim, Eun-Young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hristian creative dance work, 「The Blood of Jesus」, which is themed on the blood of Jesus Christ.

Suffering is a universal part of human life and an unavoidable reality for everyone. As we live, we encounter unexpected crises and difficulties, and such suffering destroys our plans and brings psychological anxiety and frustration. In the face of repeated crises of suffering, questions such as "Why does this only happen to me? What is the meaning of this suffering?" constantly arise, leading to confusion and despair.

The researcher, standing before deep despair thrown into the midst of such suffering, asked herself how to overcome this suffering and quench her thirst. The suffering encountered in life was too great to bear, but eventually, in earnest prayer while calling upon the name of God, she heard a resonance in her heart saying, "You are my beloved child." This was a moment of deeply experiencing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is experience became a motivation to artistically express, through Christian creative dance, that the power of the blood can bring true freedom and restoration to people in suffering, beyond simply resolving emotions. The researcher humbly called upon the name of God and sough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suffering and the blood, and the value that the power of the blood gives to Christians.

Through this, she intended to convey that the blood is God's love and grace and a message that supplies amazing power to Christians.

Jesus Christ, through the blood shed on the cross, atoned for the sins of humanity and restored the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is noble sacrifice. This can be said to be a channel of salvation through which God freely bestowed love and justice upon humanity, beyond a historical event.

The power of the blood does not end with the forgiveness of sins and salvation. It also includes spiritual healing, peace, salvation that transcends death, and even the healing of physical diseases. This power not only transforms individual lives but also becomes a driving force to renew communities and society.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warm breath of God's love for humanity, still living and active for Christians living today, beyond the past event of the cross.

This study work, 「The Blood of Jesus」, was performed at Yangjae M Theater at 7:00 PM on November 18, 2024. In order to suggest the path of spiritual growth for Christians through the blood and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blood,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examined with a focus on literature research. The work consists of three chapters, each composed of the Tearing of Jesus, the Hope of the Cross, and the Power of the Blood.

Chapter 1, "The Tearing of Jesus," expresses the suffering of believers who want to live the life of Jesus who died while looking at the blood, but struggle in pain and suffering. Chapter 2, "The Hope of the Cross," expresses the hope of praising the Lord with already confirmed love, determined to follow the path of Jesus, even though difficulties still exist in real life. Chapter 3, "The Power of the Blood," expresses that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one can overcome pain and despair and achieve complete victory. The researcher intended to show that the suffering given to Christians cannot be solved by human strength, and that it can only be overcome by the power of the blood that Jesus freely shed on the cross, and by presenting the power of the blood for atonement, human salvation, and healing through intuitive movements, she hoped that even those who have not yet met God could come a little closer to Him through Christian dance, and she expects that, through this, the kingdom of God will be expanded.



【Keywords】 Christian Creative Dance, The Blood of Jesus, The Love of Christ, Restoration, Salvation, Healing